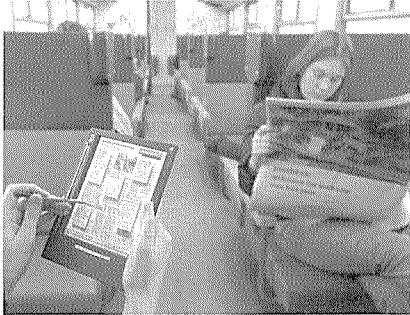


아이렉스 테크놀로지, 전자 종이 'e-리더' 개발



네덜란드 필립스에서 분사한 아이렉스 테크놀로지가 E잉크사의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선 접속 태블릿기기인 'e-리더'를 개발했다고 EET타임스가 지난 12월 20일 보도했다.

'일리아드'라는 이 제품은 아이렉스의 1세대 전자 리더 제품으로 금년 4월 출시될 예정이다.

8.1인치 디스플레이에 플래시메모리를 사용했고 무선 네트워킹, 터치스크린 기능을 갖췄으며 16컬러를 구현한다.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해 PC나 플래시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다.

아이렉스 측은 '일리아드'를 이용하면 '아외에서 햇빛이나 그림자 아래에서도 볼 수 있으며 코멘트를 쓰거나 줄을 치는 등 마치 종이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렉스 테크놀로지의 한스 브론스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산업별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B2B 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미디어 및 교육 관련 출판 업계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독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종이처럼 문서를 읽으면서 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는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렉스는 B2B 시장을 강조하고는 있지

만 일부 제품은 2006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리엠, 폴란드에 LCD 광학필름 제조 공장 설립키로

최근 LG필립스LCD가 폴란드에 총 4억 2900만유로를 투자해 연간 1100만대 생산규모의 모듈 공장 건설에 나서자 미국계 기업인 '쓰리엠'(3M)사가 인근 지역에 1000만달러를 투자해 액정표시장치(LCD) 광학필름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월 22일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에 따르면 12월 19일 3M사는 LG필립스LCD 공장 건립 예정지인 브로츠와프 지역에 광학필름 공장을 짓기로 폴란드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M사가 LG필립스LCD의 투자에 따라 현지에서 관련 제품이나 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전격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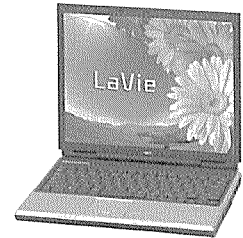
이에 따라 폴란드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이 다른 외국계 기업 유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M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3M 사무실에서 약 340km 떨어져 있는 소도시 브로츠와프 부지 일부를 30억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이다.

3M은 이 공장 설립과 생산라인 설치에 1000만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광 바르샤바 무역관장은 "3M사가 LG필립스LCD의 폴란드 진출에 따라 같은 지역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면서 "현지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경제 유발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NEC, 요나 노트북 공개



일본의 NEC가 인텔 듀얼 코어 프로세서인 요나를 장착한 노트북을 공개했다고 더레지스터가 지난 12월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요나'는 인텔이 야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초절전형 차세대 노트북 칩. 인텔은 요나가 현재의 노트북 칩보다 성능이 68% 정도 우수하다면서 디지털 거실을 파고드는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NEC가 선보인 LaVie RX LR900/ED 노트북은 ▲ 512MB 용량의 DDR 2 SD램 ▲ 945 익스프레스 칩셋 등을 사용했다. 이 제품은 또 802.11a/b/g 와이파이 어댑터도 포함하고 있다.

하드디스크 용량은 100GB이며, DVD±RW/-RAM/+R 듀얼 레이어 광드라이브를 사용했다.

NEC는 또 이 제품 무게는 2kg이며, 배터리 하나로 4.1 시간 가량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NEC는 이 제품의 정확한 출시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2006년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만 발표했다.

대만 업체들 "HDD MP3플레이어로 승부"

대만 MP3플레이어 업체들이 2005년 말 또는 다음 분기에 HDD 기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디지타임스가 지난 12

월 21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애플의 플래시 메모리 기반 아이팟 나노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신문이 전했다.

HDD의 축소판인 마이크로드라이브를 사용하면 가격이 저렴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2GB 낸드 플래시 구매 가격은 약 100달러 가량이지만 2GB 마이크로드라이브는 60~65달러로 저렴하다.

마이크로스타인터내셔널(MSI)은 4GB HDD 기반 MP3플레이어 2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장 가격은 5,990 대만달러로 2GB 아이팟 나노보다는 다소 저렴하다. 또한 인기있는 4GB 플래시 기반 MP3플레이어 가격에 비해서는 25% 싸다고 디지털타임스는 보도했다.

IBM, 포털 기술 업체 보우스트리트 인수

IBM이 포털 SW업체 보우스트리트(Bowstreet)



를 인수했다고 레드헤링이 지난 12월 20일 보도했다.

보우스트리트는 기업내 문서와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직원·고객·협력사·공급업체들이 접속할 수 있는 기업 포털에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을 개발, 판매해 왔다.

IBM은 이 회사의 기술을 자사의 서비스 지향아키텍처(SOA) 전략 및 웹스피어 포털 제품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BM과 보우스트리트는 이미 100여개 이상의 고객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해 왔다.

고객들은 포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보우스트리트의 툴과 IBM 래쇼날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해 왔다.

IBM은 두 회사의 제품을 이용할 경우 타사 제품을 이용할 때보다 제품 개발 속도가 최고 12배까지 빨라진다고 주장했다.

에이서, 내년 매출 124억달러 전망

세계 4위의 컴퓨터 회사인 대만의 에이서가 2006년에 약 124억 2,000만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키로 했다고 디지털타임스가 지난 12월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에이서 이사회는 이 같은 매출과 약 3억1056만달러의 세후이익 내용을 포함한 2006년 재정계획을 승인했다.

에이서는 2006년에도 비핵심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에이서 브랜드의 IT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핵심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이서는 노트북 업체인 위스트론의 주식 1억주를 처분해 지분을 37%에서 15.67%로 낮출 계획이다.

미국 MS, MCI와 제휴 인터넷전화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의 거대 통신업체인 MCI는 PC에서 일반전화·휴대전화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월 13일 밝혔다.

두 회사는 우선 일반용 시험서비스를 실시, 내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MS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MSN메신저 차기 버전인 윈도라이브메신저를 통해 MCI의 웹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것이다. 현재 MSN 메신저에서는 PC 간에만 음성·비디오 채팅이 가능하다.

MS와 MCI는 우선 미국에서 윈도라이브 메신저 한정 베타판을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후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 가입자는 휴대전화를 포함, 전세계 220여개국에 PC로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시험서비스 기간중 이용료는 1분당 최저 2.3센트이다.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경우 이미 스카이프 테크놀로지가 앞서 실시하고 있으며 야후도 지난주 발표를 통해 야후 메신저를 통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가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면서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휴렛패커드 중국서 개인휴대단말기 선보여



미국 하이테크업체인 휴렛패커드(HP)가 지난 12월 1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인휴대단말기(PDA)인 'iPAQ'을 선보였다. 이 단말기는 중국시장용 소프트웨어(SW)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장착된 것이 특징이다. HP는 이 제품을 중국내 1000개 소매점을 통해 '휴먼터테인먼트 상품'으로서 판매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서 중국 모델이 iPAQ를 들여 보이고 있다.